

정지용 시의 영역에 관한 고찰

김 효 중

(대구 가톨릭대학교)

1. 서론

문학작품 번역의 목적이 다른 나라의 훌륭한 작품을 외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면, 번역의 목적은 마땅히 원문의 내용과 문체를 원전에 충실히 번역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목표는 언어의 구조적 차이, 문체론적 특성 등 언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번역가가 양국의 문화와 언어에 통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번역이 워낙 훌륭하여 독자들에게 감동적인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뜻이나 문맥이 통하지 않거나, 비논리적인 번역이 너무 많고 원문과 거리가 있다거나 낱말 혹은 문법상의 오역, 역자 임의의 첨삭 등 번역이론상 허용 범위 밖의 오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간혹 사람들은 우리의 사고와 언어의 비논리성이 일상적인 언어생활은 물론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오역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외국문학 전공자들이 외국작품을 정확히

번역함으로써 언어의 비논리성을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번역을 훌륭하게 하려면 우선 번역비평이 올바르게 이뤄져야 하고 번역가와 번역비평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번역비평은 1) 번역 수준을 증진시키고, 2) 번역가에게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주는 한편, 특별한 시대와 특별한 주제에 관련된 번역방법을 조명하고 탁월한 작가와 번역가의 작품 해석을 돕기 위해서, 3)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의미론적, 문법적 차이에 관한 비평적 평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P. Newmark 1980: 181).

본고에서 필자는 문학번역비평의 이론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이 이론을 적용하여 키스터D. A. Kister의 『Distant Valleys』(1994)¹⁾와 김학동의 『정지용 전집』(1988)을 비교, 분석하여 번역비평을 시도하고자 한다.

2. 번역비평론

번역비평의 핵심은 번역이 과연 올바르게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번역가의 번역기법을 문제삼게 되며 실제로 시대 혹은 작가에게 미치는 영향의 원천으로서의 번역, 예컨대, 쉴레겔A. Schlegel의 셰익스피어 번역을 중시하고 번역가 개인의 문체 혹은 해석 의지가 번역을 특징짓는 번역가 예컨대, 휠더린F. Hölderlin의 번역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한다.

번역비평은 거의 부재한 상태였는데, 1970년대에 들어 과학적인 번역비평의 기초를 제공하는 연구업적이 현저히 눈에 띄며²⁾ 연구의 주요 테마는 원본과 번역본의 비교를 통해 오류가 있는지 찾아내고 오류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다. 번역비평의 필요성을 가장 확실히 밝혀준 학자는 라이쓰K. Reiss(1971)

1) 이 시집은 정지용의 시를 영역한 시집인데, 번역가는 이 시집으로써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에서 제정한 제29회 번역문학상(1994)을 수상한 바 있다.

2) 아래의 연구업적은 그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A. Popović, *Zum Status der Übersetzungskritik in Babel*, London, 1973, pp.161-165.

W. Wilss, *Probleme und Perspektiven der Übersetzungskritik*, in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München, 1974.

K. Reiß,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Übersetzungskritik, Kategorien und Kriterien für eine sachgerechte Beurteilung von Übersetzungen*, München, 1971.

인데,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번역비평가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여 그것을 기저로 하는 번역규범에 의거하여 번역비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휘센A. Huyssen(1969: 14)이 지적한 것처럼 번역비평의 방법론 및 기준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편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쇼펜하우어A. Schopenhauer는 불완전한 번역을 “대용커피Zichorienkaffee”(W. Wilss 1982: 216)라고 하였는데, 좋지 않은 번역은 원문과 거리가 있는 경우로서 번역가가 성급히 번역에 임했거나 번역 자체를 너무 경시한 까닭에 그러한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번역가 개인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했거나, 적절한 표현을 찾을 만큼 언어수행 능력이 부족했거나, 번역가가 텍스트를 잘못 이해했거나, 문체를 옮길 때 잘못 옮길 수도 있는데, 그것은 번역가가 택한 작품의 원작자와 번역가 자신의 감수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탓이다. 이 경우 자칫 번역가는 생략하거나 의역하기 마련인데, 이처럼 원작에 손상을 입혔을 때 곁으로 드러난 글맵시는 우아할지 몰라도 원작의 의미나 가치가 제대로 전달될지는 의문이다.

번역비평에서 중시되어야 할 것은 텍스트이며, 특히 그 구성, 기능, 수용 사이의 의존관계가 분명히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번역비평은 텍스트 유형론과도 유관하며 번역가의 언어수행 능력과 문화능력이 문제시된다.

그리고 같은 텍스트에 대하여 번역가들이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첫째, 모든 번역가는 저마다 자신의 고유한 언어수행 능력과 문화능력, 개인적으로 특별히 선호하는 문체를 가지고 있고, 둘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는 기본적 의미범주(K.G. Schweisthal 1971: 191-201)의 번역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며 비록 번역가들의 번역능력이 비슷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고, 셋째, 문학작품 번역에서는 단순한 지시나 전달상황과는 달리 몇 가지 다른 자연어의 등가적 표현방법, 즉 변형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번역비평가는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상관적 관계를 고려하되 텍스트의 기능, 구성, 수용 등을 토대로 하여 번역문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 때 번역비평가의 과제는 1) 원문과 번역문의 비교, 2) 번역과정에서 언어심리적 절차의 재구성, 3) 상호 텍스트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의 설정이다.

번역비평은 언제나 번역가 자신의 번역등가 규범과 번역경험에 따라 결정

된다. 다시 말해서 번역가의 표현은 창조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의 기준은 없다. 크르체조우스키(Krzeszowski, 1979: 21)가 언급한 바와 같이 등가문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두 나라 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언어수행 능력의 일부인 반면, 번역능력은 번역 수행능력의 일부이다.

번역될 텍스트유형에 따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번역가의 번역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다. 과학적, 상업적 텍스트, 신문기사, 관광정보용 책자 등의 번역은 비교적 객관적인 번역비평이 가능하나, 문학번역을 비평하는 경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문학작품의 모든 독자 나아가서 문학비평의 독자는 문학적 표현이 유효한 관련개념 안에서 올바르게 완벽하게 이해되고 인식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문학작품은 그것이 번역되어 번역비평을 통하여 분석될 때 그 분석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번역비평의 객관성은 커뮤니케이션의 규범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의미상으로는 올바르지만, 상황으로 볼 때는 제대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하우스 J. House의 용어대로 “의미의 실용적인 면(the pragmatic aspect of meaning)”(1977: 26)을 도외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번역비평은 요인 분석과정을 거쳐야만 성공적일 수 있는데, 이 요인 분석과정은 언어행위 연구에 속하며 번역가가 번역과정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간주하고 원문과 번역문을 사회·문화적 상황차원에서 비교, 분석했을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근사한 자연적 등가(The closest natural equivalent)”(E. A. Nida 1969)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번역의 질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며(Raymond van den Broeck 1984: 56) 번역가를 배제하고 언어적 차원에서만 연구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정신적 행위가 곧 번역이므로 번역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석학적 접근방법이 또한 필요하다. 그렇지만 언어학적 접근은 텍스트유형에 관련된 번역비평을 위한 기본적 과정인 동시에 번역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상황적 요인을 체계화할 수 있는 과정이다.

문학작품 번역비평의 네 가지 기본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적절한 번역방법을 설정하기 위해서 원문의 의도, 주요 언어기능, 어조, 주제, 색인, 문체(문장론적, 어휘론적) 그리고 원문의 문학적 가치, 역문의

예상독자 등의 요인을 정확히 분석한다.

- 2) 원문과 번역문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번역문 전체 혹은 임의의 구절에서 의미론적, 문체론적, 실용적,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 3) 특히 주제에 관한 해석을 포함하여 원문과 번역문의 전체적 인상을 평가한다.
- 4) 번역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번역비평은 일종의 지성과 상상력의 훈련이고 다만 부분적으로 객관적일 뿐이라는 점이다(P. Newmark 1982: 181-182). 특히 체코의 학자들은 번역비평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레비J. Levy, 미코F. Miko, 포포비치A. Popović, 뒤르신D. Durisin 등은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그런데, 번역비평은 실제로 이들의 노력에 비해서 큰 발전을 이룩하지는 못했다.

번역비평은 가치 평가의 측면에서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면서도 체계적 기술면에서 최소한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문과 번역문의 비교 분석인데, 텍스트 구성은 물론 텍스트 체계가 비교에 포함되며 이 부분에서도 비평의 가치 평가가 적용된다. 번역비평가는 예상되는 독자에 대한 관점에서 번역가가 적용한 번역방법도 고려해야 하고 번역가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사항이나 번역방법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외국문학 작품 번역³⁾에서 오역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번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결과이다. 즉 번역이란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작업임을 무시한 채 무책임하게 번역하

3) 예컨대, 송동준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데미안」번역(1948-1984)의 경우 40여 명의 번역가가 40여 출판사에서 출판한 번역의 상황을 검토하면서(송동준, 1986: 56-73), 비교적 성실한 번역도 있었으나 번역이라 할 수 없는 번역이 더 많았다고 비판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첫 페이지부터 잘못된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도 있었으며 복잡한 부분은 아예 생략한 것도 확인했다고 했다. 그것도 첫 단락에서 특히 이미지 서술 부분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 많았고 가정문과 서술문을 구분하지 못한 번역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였기 때문이다. 번역의 질은 번역가의 능력에 따르지 반드시 앞 시대의 번역이 뒷시대의 번역보다 못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⁴⁾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번역은 첫째, 동적dynamic 번역인데, 이것은 정보를 제대로 옮길 뿐 아니라 원문이 주는 것과 똑같은 감흥을 번역어로 옮겨 놓은 번역(Nida and Taber 1969)이며 둘째, 정확성, 명확성, 자연스러움을 지닌 번역(K. Barnwell 1980: 64)이다. 이와 더불어 의미, 형태, 기분, 문체 등 네 가지는 좋은 번역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

3. 정지용 시의 영역 분석

3.1. 번역시집의 특징과 번역가의 번역태도

본고의 연구대상인 번역시집의 역사는 정지용의 시(김학동 1988)를 거의 모두 번역, 수록하였으며 서문 혹은 후기 등에서 밝혀 두어야 할 원작자의 생애 및 작품세계 기타 번역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이 번역시집의 특징은 1) 원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작품과의 연관 아래 작품세계를 규명하였고, 2) 작품을 주제 혹은 소재별로 유형화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리하여 번역하였으며, 3) 각 시마다 필요한 경우 풍부하고 친절하면서도 정확한 각주를 달아 놓아 독자로 하여금 이질적인 문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번역가가 번역하려는 작품을 충분히 연구하고 나서 번역가 나름의 일정한 기준을 갖고 번역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 번역시집의 제목은 역자가 임의로 붙인 것(《조선일보》1994년 10월 3일자 참조)인데, 정지용의 시에 “먼 골짜기”라는 시는 없고 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제목이라고 생각되어 붙였다는 것이다. “먼”이란 “가고 싶지만 아직 못 가본 곳”이므로 매력이 있는 상상의 공간을 향한 열망을 나

4) 이것은 “70년대보다 80년대가 번역의 질이 조금 후퇴한 인상을 준다. 세삼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뒤의 번역이 앞의 번역보다 훌륭한 것이 아니며, 번역의 우열은 역자의 능력에 따른다는 사실이다.”(이충섭 1992: 75)라는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타내고 “골짜기는 정지용의 시에 자주 나오는 산과 그 너머의 바다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정지용의 시를 읽으면 먼 여행을 떠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 번역시집의 서문을 참고로 하면, 번역가는 1974년부터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무속과 세계의 무속, 서양의 부조리극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 그는 본래 김소월을 애호하였는데, 우연히 영역된 정지용 시를 읽고 이에 매료되어 그의 시를 번역대상 작품으로 선택하였다. 영미권의 독자들이 그의 번역시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미지수지만 번역가는 정지용을 20세기 세계문학을 대표하는 예이츠, 푸르스트, 파운드, 릴케, 발레리와 동등하게 보는 한편, 정지용과 가장 가까운 서양의 시인으로서 예즈라 파운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등을 들었다. 그는 정지용의 짧은 시편들은 파운드의 시처럼 압축된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고 「고향」, 「향수」 등의 긴 시들도 역시 예이츠의 시처럼 인간의 삶에 대한 애정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지용의 시 「바다 6」을 특히 애호하고 있는데, 이 시는 진달래, 소나무, 대나무와 같은 한국적 이미지들로 구성되었으며 외관상으로 바다의 풍경을 노래한 시 같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연인과의 이별을 애매 모호하게 그리는 한국적 연애시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역낚에 향기한 바위 틈에/ 진달래꽃빛 조개가 햇살 쪼이고/ 청제비 제
날개가 미끄러워 도네/ 유리관같은 하늘에/ 바다는 속속 드리보이오/ 청뿔
뿔처럼 푸른/ 바다/ 봄”

「바다 6」

번역가는 정지용의 연작시들은 예즈라 파운드의 「칸토스」처럼 바다에 육체 감의 맛을 입히는 이미지즘의 기법에 토대를 두면서 탁월한 이미지 구사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정지용의 시집을 2년 간 매일 조석으로 마음 편한 상태에서 30분씩 읽고 또 읽었으며 시 한편을 번역할 때 몇 시간씩 탐독 하면서 연구했고 국문학과 영문학과 교수의 협조를 얻었다고 술회하고 있다(키스터 1994: 서문 참조).

정지용의 시에는 한국어의 맛이나 시골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말이나 의성어가 많기 때문에 그의 시를 轉移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옮기는 일은 매우

어렵다. 번역가는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의 이미지 탐구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는 기법을 택하고 있다. 사실상 이미지는 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리고 이미지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상징주의 시인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있으나, 프랑스 상징주의시와는 달리 정지용의 시는 미학적 신비주의에 빠지기보다 생생한 자연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번역가는 한국의 문화를 소화해 내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한국어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여 번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즉 한국어의 특징은 1) 한국어에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혼돈을 일으키기에 알맞고, 2) 한국어에는 순수 한국어와 한자에서 온 한국어가 있어 외국인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3) 한국어는 음의 미세한 변화로 인해서 의미상의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은, 는, 이, 가 등의 조사에 의한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나타나고, 4) 한국어에서는 주어 없이 문장이 성립됨으로써 자기 내면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 어법의 하나라는 것이다.

3.2. 원시와의 비교, 분석

본 항은 번역시와 원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번역의 질적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번역의 태도에 일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고 원시에 얼마나 충실하게 근접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자는 아래의 네 편의 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즉 「홍시Little sister and persimmons」, 「따알리아Dahlias」, 「슬픈 인상화A sad impressionist paintings」, 「琉璃窓1Window 1」이 그것이다.

1) 「홍시」

어쩔게도 홍시 하나.
오늘에도 홍시 하나.

까마귀야. 까마귀야.
우리 남게 웨 앉었다.

우리 옴바 오시결랑.
맛뵈라구 남겨 뒀다.

후락 딱 딱
휘이 휘이!

「Little sister and the persimmons」

Yesterday a persimmon,
Today a persimmon.

Hey there, crow!
Why sit in our tree?

Big brother is coming,
Some are left for him to taste.

Clap, clap, clap —
Shoo, shoo!

우선 제목을 보면, 원제목에 없는 단어 “little sister”를 번역자 임의로 첨가하고 있는데, 시의 내용이 감을 소재로 하여 시적 화자가 오빠를 간절히 생각하는 내용이어서 주제를 선명히 부각시키려는 번역자의 의도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오빠’를 ‘elder brother’ 대신 ‘big brother’로, ‘younger sister’ 대신 ‘little sister’로 하여 ‘little’과 ‘big’의 대조를 통한 뉘앙스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오누이의 정⁵⁾은 다른 민족에 비하여 더욱 각

5) 실제로 필자 역시 어릴 때 손위 오빠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는데, 그것은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본인의 마음에서 전적으로 우러나온 오누이의 정이었다. 한국 가정의 오누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므로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한국적 정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누이의 정이라고 본다. 가령 「해와 달이 된 남매」라는 동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고 박용철의 「두 마리의 새」와 「밤 기차에 그대를 보내고」 등에서 나타난 오누이의 정, 정지용의 「향수」에서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라는 표현 속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것은 어린 누이에 대한 시인의 애정 어린 눈길이다.

별하다는 것을 역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터득한 결과일 수도 있다.

원문과는 다르게 역자 임의로 문장 부호를 첨가한 것도 특기할 만한데, 2연 1행의 감탄사와 2행의 물음표는 원문의 마침표 대신 역자 임의로 대체해 놓은 것이고, 4연 1행의 데쉬는 원문에 없는 것을 첨가한 것이다. 원시에서 “후락, 딱 딱”이 손바닥을 쳐서 새를 쫓아내는 행위를 나타내는 의성어인 만큼, 역자는 이에 대응하는 “clap, clap”으로 번역했고, “휘이 휘이”는 새 쫓는 소리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한국 의성어인 만큼 “shoo, shoo”로 적절히 번역하였다. 결과적으로 4연 1행의 데쉬는 박수를 쳐서 새 쫓는 행위의 연속을 나타내고자 한 역자의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총체적으로 보아 원문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면서 의성어, 의태어 등 어휘 선택에 있어서 한국문화를 살릴 수 있는 어휘 선택에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

2) 「따알리아」

가을 별 제앵 하께
내려 쪼이는 잔디밭.

함빡 피여난 따알리아.
한낮에 함빡 핀 따알리아.

시악시야, 네 살빛도
익을 대로 익었구나.

젓가슴과 붓그림성이
익을대로 익었구나.

시악시야, 순하디 순하여 다오.
암사심 처럼 뛰여 다녀 보아라.

물오리 떠 돌아 다니는
흰 못물 같은 하늘 밑에,

함빡 피어 나온 다알리아.
피다 못해 터져 나오는 따알리아.



「Dahlias」

A field of grass
Basking in the bright autumn sun—

Dahlias in full bloom,
Fully bloomed dahlias at noon.

The fresh luster of your flesh
Is also ripe as can be.

Your breasts and covness
Ripe as ripe can be.

Be gentle, I beg you;
Gambol like a doc..

Beneath a pond-like sky of
White water adrift with wild ducks,

Full blooming dahlias—
Dahlias not blooming.
but bursting in bloom.

원문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번역시에서 총7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다만 1연, 7연에서 원문에 없는 문장부호 데쉬를 역자 임의로 첨가하고 있다. 이것은 역자가 나름대로 의미의 강조를 위한 의도에서 행한 결과로서 1연에서는 가을 별이 내려 쪼이는 상황을, 7연에서는 함빡 피어난 따알리아를 부각시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 3연과 5연의 “시악시야”와 같은 돈호법은 번역시에서는 무시되었으나 이 낱말이야말로 한국적, 동양적 정서가 배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정확히 부합되는 영어 단어를 찾아 번역했어야 한다. 이 어휘가 풍기는 뉘앙스를 白眼의 역자가 육감적으로 느끼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더구나 이 말이 한국적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아채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어휘는 현대에 와

서 별로 쓰이지 않고 호남지방에서 간혹 쓰이지만 과거에는 미혼여성이나 갓 결혼한 신부에게 두루 쓰였으며 영랑 김윤식이나 용아 박용철의 시에도 散見된다. 이처럼 역자가 아무리 세심한 배려 끝에 번역을 했다 해도 문화에 관련된 섬세한 부분은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작가가 한송이의 따알리아를 시약시에 비유한 것이나 독특한 동양적 정서인 시약시의 부끄러움 등을 묘사하고자 한 정지용의 의도를 역자가 과연 어느 정도로 감지하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다만 마지막 행을 원문과는 다르게 파격적으로 한 행을 추가한 것이 주목된다. “피다 못해 터져 나오는 따알리아”라는 표현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흐드러지게 핀 따알리아의 모습에서 한창 성숙한 시약시의 모습을 읽어내고 이것을 묘사하고자 한 시인의 의도에 근접하고자 하는 역자의 끈질긴 노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3) 「슬픈 印象畫」

수박냄새 품어 오는
 첫너름의 저녁 때.

먼 海岸 쪽
 길옆나무에 느러 슨
 電燈. 電燈.
 헤엄쳐 나온 듯이 깜박어리고 빛나노나.

沈鬱하게 울러오는
 築港의 奇蹟소리……奇蹟소리.
 異國情調로 퍼덕이는
 稅關의 旗入발. 旗入발.

세멘트 간 人道側으로 사뭇 사뭇 움기는
 하이한 洋裝의 點景!

그는 흘러가는 失心한 風景이여니.
 부줄없이 오랑쥬 껍질 씹는 시름.

아아, 愛施利·黃!
그대는 上海로 가는구료……

「A sad impressionist paintings」

On an early summer evening
Bearing the scent of watermelon.

Lamps, Electric lamps,
Lined up in trees along the road
Toward the distant seashore—
Gleaming, glistening, as if out from a swim!

WhistlesSteam whistles...
Resounding dismally from the harbor works.
Flags. Customhouse flags,
Fluttering with an exotic flair.

A touch of white western finery
Tripping lightly along the sidewalk!

A fleeting, cheerless sight...
The anxiety of idly chewing an orange peel....

Oh, Mr. Aesiri Whang!1
You're headed for Shanghai2.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연인 愛施利·黃과의 이별의 슬픔에 젖어 있고 그 슬픔을 애상적 색조의 풍경화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애상적 풍경화를 위하여 후각, 시각, 촉각, 청각, 미각 등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활용된 시이다. 헤어지는 시간이 희망의 아침시간이 아닌 저녁시간으로 설정되었고 저녁시간은 수박냄새로 후각화되고 “헤엄쳐 나온 듯이 깜박어리고 빛나” 시각화되어 있다. 역자는 원시에 활용된 이미지들을 살리려고 적합한 어휘를 골라 번역하고 원시에 없는 감탄사를 첨가하기도 했다. 본문에 나오는 이름과 지명 등 고유명사에 관하여

주석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는⁶⁾ 것이 주목된다. 본래 문화권이 다른 번역 독자에게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이 바로 주석이므로 주석을 다는 일은 번역 독자에 대한 친절한 예의에 속하며 현대 번역이론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2연 3행의 “전등, 전등”은 번역시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어 “Lamps, Electric lamps”로 번역하였으며 3연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Whistles.....Steam whistles.....”로 번역하였다.

4) 「琉璃窓」 1

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양 언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아도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디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寶石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琉璃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흔 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山새처럼 날러 갔구나!

「Window」 1

Something sad and cold
 shimmers at the glass
 When I listlessly draw, near
 and blur clouds of breath,
 As if tamed it flutters frozen wings.

6) 역자의 주석을 풀이하면, 첫째, 에시리황은 일본에 산 한국인임을 암시한다는 것이고 둘째, 상해는 일본식민지 치하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으므로 아마도 이 시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Aesiri Whang: The name suggests a Korean living in Japan. Shanghai was the bas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under Japanese occupation Perhaps the poem reflects this. 이 역문은 본고에서 자료로 삼은 키스터의 번역시집에서 그대로 옮긴 것임).

Though again and again I wipe and take a look,
 The pitch black night —
 surging out, surging in —
 collides/
 Drenched stars, a gleam, are set like jewels.
 To wipe the glass alone at night,
 A lonely, spellbound meditation —
 Ah, lovely lungs all torn,
 You've flown away like a wild bird!

원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1행의 “차고 슬픈 것”이다. 자아의 내면 감정 상태를 매우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한 것인데, 촉각을 나타내는 언어 “차고”와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는 언어 “슬픈”이 역설적으로 결합되어 독특한 정서적 상관물을 만들어냈다. 차가운 세계는 죽음의 세계를 나타내며 차가운 감정은 슬픈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 시에서 이와 같은 이질적이고 모순되는 어휘의 결합의 또 다른 예는 8행의 “외로운 황홀한”이다. 이처럼 자아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이 시의 묘미가 있고 이것이 곧 정지용 시학의精髓다.

번역시 하단에 시의 창작배경 즉 시인이 어린 자식을 잃고 썼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다른 번역시와 다른 점이다. 이로 미루어 번역자가 원저자의 창작배경에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검토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형식면에서나 의미면에서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였는데, 행의 길이가 달라진 것은 앞의 다른 시에서처럼 영어와 국어의 어법 차이로 인하여 달라진 것이다. 문장 부호의 첨삭을 다른 번역시에서와 같이 번역자 임의로 조정하고 있는 것도 다른 번역시와 공통이다.

4. 결론

번역비평은 1) 번역 수준을 증진시키고, 2) 번역가에게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며, 3) 특별한 주제와 특별한 시대에 관련된 번역을 재조명해주며, 4) 탁월한

작가와 번역가의 작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진행된 본고의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번역가는 원작자의 전기적 사실과 작품과의 유기적 연관 관계 안에서 작품 세계를 규명하고, 작품을 주제별, 소재별로 유형화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가가 구축한 구성 원리에 따라 작품을 번역하였다. 키스터의 번역태도는 시의 이미지에 중점을 두고 한국어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가급적 번역에 반영하고 있다.

키스터의 번역시를 원시와 대조해보면, 원문에 충실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원문의 어휘를 다른 어휘로 대체하고 있다. 시의 내용 혹은 분위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역자는 문장부호를 임의로 침삭하고 원작자가 중시한 반복법의 재현에도 각별히 유념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원시의 창작배경을 각주를 통하여 설명해 줌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편,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白眼의 번역가에게는 한국적, 동양적 정서가 내포된 어휘 즉 고유한 문화소의 번역에서는 다소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총체적으로 어휘론, 문장론, 의미론 및 사회-문화적 상황의 관점에서 이 번역시를 평가한다면, 번역시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원시의 내용, 형식에 매우 근접하게 번역하고 있어서 적절한 번역으로 평가된다. 번역가의 번역작품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성실한 번역태도, 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번역의 결과, 번역가는 양질의 번역을 해낸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시 영역의 한 방법을 제시해 준 셈이다.

특히 키스터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문학 전공 교수와 영문학 전공 교수의 협조를 얻어 가능한 한 좋은 번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 것도 주목된다. 지지하는 바와 같이 이상적인 번역은 외국문학과 한국문학자의 공동작업 아래 가능한 것인데, 번역가는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간파하고 번역에 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문헌

<기초자료>

- 김학동, 『정지용연구』, 민음사, 1987.
 _____, 『정지용시집』, 민음사, 1988.
 Kister, D. A., *Distant Valleys. Poems of Chông Chi-Yong*. Asian Humanities Press, Berkeley, California, 1994.

<국내외 논저>

- 김효중, 『한국 비교문학의 현장』, 효성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6.
 송동준, 『독문학 — 장르별 현황과 문제점』, 《예술과 비평》, 1986년 가을호
 윤호병, 『비교문학』, 민음사, 1994..
 이충섭, 『한국의 카프카 수용 1955-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Barnwell, L.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Translation*, Horsleys Green, England Summer Institut of Linguistics, 1980.
 Huysen, A. *Die frühromanische Konzeption von Übersetzung und Aneignung*, Zürich, 1969.
 Kreszowski, T. *Contrastive Generative Grammar*, Tübingen, 1979.
 Newmark, P. *Approaches to Translation*, Pergamon Press, Oxford, 1980.
 Nida, E 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Brill, Leiden, 1969.
 Raymond van den Broeck, *Second thought on Translationcriticism,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edt. by Theo Hermans). St. Martins Press. New York, 1984. p. 56)
 Reiss, K.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Übersetzungskritik*, Huber, München, 1971.
 Ungeheur, *Inhaltliche Grundkategorien sprachlicher Kommunikation*, in: K.G. Schweisthal, *Grammatik, Kommunikation, Festschrift für Alfred Hoppe*, Bonn, 1971.

[Abstract]

A Study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Chōng Chi-Yong's Poems

Kim, Hyo Joo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translation of Korean poems into foreign languages by taking a close look at translation criticism theoretically and by comparing and analysing translated versions of Chōng's works with his own Korean versions. A new paradigm for translation is expected to come out of this study resulting in the following points.

For better translation, translation criticism is very important. Its purpose should be 1) Quality improvement of translations, 2) Providing objective standards for translators, 3) Reconsidering the translations regarding specific times and themes, 4) Analysing semantic and gramma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originals and the translations. Above all, a text should be placed in the centre of the study, thus indicating links to the text typology with translation. Also we can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a translator's capabilities.

The tasks of translation criticism are 1) Comparing originals with translations, 2) Reconstructing the psycholinguistic process of translating, 3) Producing methods to meas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translation. To successfully accomplish the tasks, the translation competence of a translator is far more important than the linguistic competence.

The standards of translation criticism should be focused on measuring the quality of the tran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yntax, semantics, pragmatics, and cultural elements. However, there exists no objective standard.

Distant Valleys, which is dealt with in this article, is a book of translated poems. In it, the writer Chōng Chi-yong's life is reflected in relation with his works of art. The translator not only added the explanations to the poems, but also classified them according to the themes and subjects to help the reade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understand them easily.

It is clearly detected that the translator exerted every effort by reading and studying the originals thoroughly and cooperating with scholars in the field of Korean and English Literature departments. The minimal loss of original meaning resulted from inevitable cultural differenc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oretical knowledge of translation combined with the translator's devotion to the accuracy paid for itself here with this wonderful production of the translation.

K C I